

Ⅰ 산간문단 Ⅰ

2박 3일간의 홍콩여행기

홍윤정 / 대성목재(주)

2005년 4월 1일 만우절날 친구 현화와 대한항공 인천발 홍콩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9년 만에 해외 여행이란 정말 생각만으로도 환상적이었다.

영어도 잘 못하고 해외에 단 한번도 나가본적 없던 내가 여행사 패키지도 아닌 배낭여행을 선택한 사실만으로도 내자신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3시간 30여분의 비행을 마치고 홍콩공항에 내려섰다.

공항 안에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한국에서의 상큼한 봄날씨와 달리 끈적끈적한 습기가 우릴 맞이했다. 낮선 느낌도 잠시, 공항 안의 대형 광고판에서 한류스타 안재욱이 선전하는 핸드폰 광고가 보였다. 지하철역마다 가수 비의 가방광고가 이어지고 있었고 홍콩극장에서는 한국영화 '우리형'이 상영 중이라는 광고판이 여기저기 붙어있었으며 밤이 되니 곳곳의 상점에서 이영애가 출연중인 대장금을 모두들 진지하게 시청하고 있었다. 말로만 듣던 한류가 이런 거구나... 정말 외국에 나오면 애국자가 된다더니... 내가 지금 한국인이라는게 너무 자랑스러웠다.

여행 전 미리 예약해 두었던 한국인이 운영한다는 여관을 찾았다. 침사추이 부근에 있는 허름한 건물내의 4층이었는데 조선족 아주머니가 우릴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여관내부는 아주허름하고 냄새도 심했지만 일단 주인아주머니와 말이 통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우리는 짐을 풀어놓자마자 2박3일간의 짧은 시간이 아까워 여행을 시작했다. 가이드 북만 든채 여기저기 찾아다녔다. 침사추이에서 약 500원 가량하는 페리를 타고 홍콩 섬에 내렸다.

홍콩 섬의 야경이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대낮의 홍콩 섬의 빌딩들도 우리의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들 정도로 웅장했다. 거리에 일반 상점처럼 준비해있는 명품샵들, 도로를 질주하는 이층버스와 외제차들 모든 것들이 신기하기만 했다. 허기진 배를 달래려 샌드위치와 네스카페 커피를 들고 거리를 서성거리는데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 하고 있는듯 했다 달려가서 보니 그날이 마침 장국영이 사망한날이라 자살을 했다는 만다린 호텔 앞에서 추도식이 열리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각국의 팬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꽃다발과 편지, 사진들을 스

크랩해 가져다 왔고 여러 방송사의 카메라들이 그것을 담고있었다. 평소 장국영 팬은 아니었지만 웬지 마음이 씩씩해졌다.

간단한 빵으로 요기를 하고 물어 물어 버스를 탔다. 홍콩의 유명한 해안가 리펄스 베이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역시나 잘못타고 말았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반버스를 타야 하는데 마을버스를 탄 것이었다. 버스 안에서 안절부절 어떡해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기사아저씨의 한마디 'where are you going?' 너무 반가웠다 묻지도 안았는데 말을 걸어주다니... 친절한 아저씨의 덕분으로 우리는 버스를 갈아타고 목적지로 갈수 있었다. 홍콩을 다녀와서 느낀 점인데, 홍콩은 워낙 관광객이 많다 보니 직접 다가와서 말을 걸어준다. 그리고 길을 알려주기위해 많은 도움을 준다. 친절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홍콩 섬의 유명한 곳들을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만으로 빠짐없이 보고 느끼고 돌아왔다.

첫째 날의 어리버리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던 것에 비하면 둘째날 아침은 홍콩이라는곳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에 코를 찌르던 기분 나쁜 냄새도, 눅눅한 습기마저도 친숙해졌다.

여관주위의 동네꼬마들과 반갑게 인사도 했고 길거리에서 망고스틴이라는 맛있는 과일도 흥정해서 사먹고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제법 자연스러워졌다.

홍콩은 정말 쇼핑의 도시라는 말이 무색하지않을 정도로 상점들도 많고 가격도 많이 싸다.

둘째 날은 여러 마켓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즐겼다. 환전을 해갔던 돈이 바닥나서 아쉽게 발을 들렸지만 아이쇼핑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밤이 가는데 너무 아쉬웠다. 우리는 캔맥주 두 캔을 사들고 침사추이의 연인의 거리로 나갔다.

연인의 거리는 월미도와 비슷한 해안가인데 바다너머로 보이는 홍콩 섬의 빌딩에서 매일 저녁 8시 반 불꽃축제를 감상할 수 있다.

시간을 붙잡고 싶었다. 내가 이런 곳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저런 멋진 광경을 보며 캔맥주를 마신다는 것은 정말 상상만 하던 일이었는데... 아직도 그때 생각만하면 너무 가슴이 벅차 오른다.

마지막밤을 황홀하게 보낸 우린 셋째 날 집에 갈 준비를 했다. 조선족아주머니와 아쉬운 작별을 했고 2박3일간 정들었던 곳과 인사를 하며 홍콩공항으로 나오는 길까지도 MTR이라는 고속 전철을 타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

2박3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모르는 곳을 찾아 다니고 낯선 문화를 접하고 20대의 마지막 줄에 정말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회사에서 간호사와 여직원의 사이를 오가며 짝짝하고 무미건조하다고만 생각했던 일상들이 우리가 홍콩에서 보냈던 2박3일을 아쉬워했던 것처럼 언젠간 지금의 이 시간도 아쉽고 그리울 날이 올 거라는 생각에 오늘도 열심히 산업간호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중이다.